

# ‘위안부문제 해결완료’ 반영하라 日정부 집요한 교과서 수정 지시

### ‘미해결’ 고교 교과서 바뀌

### 교과서 저술 위축 효과

### 표현 수위 알아서 낮추기도

교육정책을 담당하는 일본 중앙행정기관인 문부과학성이 검정 제도를 이용해 역사 문제에 관한 정부 입장을 교과서에 반영하도록 집요하게 수정을 지시한 것으로 지난 31일 확인됐다. 대표적인 것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다.

지난 30일 완료된 내년도 고교 교과서 검정 심사를 통과한 자료(實效) 출판의 역사총합(종합) 교과서는 “한반도-대만 출신자에 대한 보상이나 미지불 임금 청구, 이른바 ‘중군 위안부’ 등 미해결의 문제가 많다”라고 기술했는데 검정에서 이런 설명이 문제가 됐다.

문부과학성 측은 “미해결”이라는 표현이 학생들의 오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결국 자료 출판은 “한반도-대만 출신자에 대한

보상이나 미지불 임금 청구, 이른바 ‘중군 위안부’ 등, 정부는 해결이 끝났다고 하고 있으나, 문제가 많다”로 수정하기로 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의 해결이 완료됐다는 일본 정부 견해를 반영하고자 검정을 통과한 셈이다. 교과서적의 역사총합은 전후 보상 문제를 다룬 코너에서 “일본의 배상, 보상은 1950년대에서부터 1970년대 초반에 걸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나 일화(日華-일본-대만)평화조약, 일한기본조약(한일기본조약) 등 국가 간의 결정에 의해 정해졌다”며 “일본은 베마(미안마의 옛 이름),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에 배상을 하고 한국 등에 경제협력의 형태로 보상을 했다”고 기술했다.

이에 대해서도 문부과학성 측이 문제를 제기했고 결국 출판사 측은 “일본 정부는 이들 조약으로 보상 문제는 개인에 대한 보상을 포함해 해결이 끝났다고 하고 있다”는 내용을 덧붙이게 됐다.

일제의 토지 수탈에 관해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했으며, 소유권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많은 조선 농민으로부터 토지를 빼앗았다”고 기술한 다이이

치기쿠샤(第一學務社)의 역사총합 교과서도 검정에서 문제가 됐다.

이 출판사는 학생이 오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토지조사사업에 의해 소유권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토지를 잃고 소작인이 된 농민이 나왔다”로 내용을 수정하기로 했다. 언뜻 보면 비슷한 내용 같지만, 토지를 누가 수탈했는지를 알기 어렵게 설명이 바뀌었다.

일본 정부는 근현대사 분야 등에 관해 교과서에 정부의 통일된 견해를 기술하도록 검정 기준을 앞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 시절 개정했는데 이는 일본의 침략 전쟁이나 식민지 지배 등 가해 행위를 흐리게 만드는 방향으로 활용되고 있다.

초기에는 저자들이 소신 있게 서술하는 사례가 꽤 있었으나 시간이 갈수록 알아서 표현 수위를 낮추는 위축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검정에 탈락하면 어렵게 만든 교재가 학교 교과서로 채택될 기회를 상실하기 때문에 출판사는 큰 손실을 보기 때문에 검정 기준을 직간접적으로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지난 30일(현지시간) 태국 매홍순에서 군인들이 미얀마 군부의 공습을 피해 이곳으로 피신한 카렌족 부상자들을 구조하고 있다. 이들 카렌족은 지난 27일 시작된 미얀마 군부의 공습을 피해 배를 타고 살원강을 건너 이곳으로 왔다. /연합뉴스

## 미얀마 소수민족 ‘反 군부’로 결집할까

### 3개 무장단체 협력 공동성명

### “7만5000명…정부군 맞설 수 있어”

미얀마의 소수민족 무장단체들이 군부에 맞서 힘을 합치기로 선언하면서 반 군부 무장세력의 결집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지난 31일 외신과 현지언론에 따르면 미얀마민족민주동맹군(MNDAA), 아라칸군(AA), 타양민족해방군(TNLA) 등 3개 무장단체는 전날 공동 성명을 내고 군부가 시위대 학살을 멈추지 않으면 다른 소수민족 무장조직 및 반 군부 세력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부라카인주에서 아라칸족(라카인족) 자치를 주장하는 반군인 AA의 카인 투카 대변인은 현지 매체 이라와디에 “소수민족 단체들이 억압받은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얀마 소수민족 무장단체들이 보유한 병력을 합치면 대략 7만 5000여명

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의 군사정보 컨설팅 업체인 제인스의 앤서니 데이비스 애널리스트는 “만일 여러 곳에서 다발적으로 전투가 벌어진다면 35만명에 달하는 미얀마 정부군과 맞서기에 충분한 병력”이라고 말했다. 그는 “카친, 카렌, 샨, 라카인 지역의 반군이 전방위적인 군사 작전을 벌인다면 정부군은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군부를 피해 은신중인 여권 인사들도 다음달 소수민족 지도자들이 참여하는 통합정부(unity government)를 출범하겠다고 선언했다.

반면 소수민족 무장단체들이 세력을 합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수십년간 지속된 소수민족 간 분쟁이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힌다. 미얀마 군은 지난 27일 남동부 카렌주의 마을을 공습해 주민 여러명이 숨지고 3000여명이 국경을 넘어 태국으로 피신했다.

이는 무장단체인 카렌민족연합(KNU)이 ‘미얀마군의 날’에 군 초소를 습격해 정부군을 사살한 데 따른 보복 조치다. /연합뉴스

## 수에즈 운하 열렸지만 ‘마비 후유증’ 지속

### 유럽 항구에 배 몰려 혼잡 우려

### 운임 상승 탓 지연 비용 ‘눈덩이’

막혔던 이집트 수에즈 운하가 한주 만에 뚫렸지만 여파가 상당 기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수에즈 운하를 막아선 대형 컨테이너선 에비거노의 좌초 문제가 해결되면서 지난 29일(현지시간) 오후부터 선박이 운하를 통항하기 시작했다.

이집트 수에즈운하관리청(CSA)은 지난 30일 아침까지 113척의 선박이 통과하고 나흘 안에 통행 체중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수에즈 운하가 마비되는 동안 인근 항구, 홍해상에서 대기 중인 선박은 400척 정도였다.

전문가들은 대기 선박이 수에즈 운하를 순조롭게 통과하더라도 이번 사태로 인한 물류 운송 지연이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탈레흐 칼릴리 컨테이너대 국제정치학 교수는 지난 31일 미 NBC방송에 예상치 않은 일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일주일 안에 대기 선박이 모두 통과할 것으로 본다면서도 “많은 선박이 한꺼번에 물리게 된 유럽의 항구가 혼잡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의 전문가인 호프만은 지난 30일 기자회견에서 병목현상이 몇 달간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존 맥건 뉴캐슬대 해양 운송-물류학 교수는 “4~5일 지연은 다른 곳에서 컨테이너를 옮기는 사람에게 몇 주 후의 4~5일 지연”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봉쇄 완화하자 해변에 몰린 영국인들 영국 정부가 코로나19 봉쇄를 완화한 가운데 지난 30일(현지시간) 잉글랜드 남서부 본머스 해변에서 시민들이 따뜻한 봄 날씨를 즐기고 있다. 영국 잉글랜드 지역에서는 전날부터 야외 운동과 6인 이하 야외모임을 할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

## 미 시카고공항, 코로나 이전으로 이용객 수 회복

미국 항공교통의 허브 시카고 공항 이용객 수가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카고 NBC방송은 30일(현지시간) 연방 교통안전청이 시카고 양대 공항 오해어국제공항과 미드웨이공항에서 실시한 항공기 탑승객 보안 검색 횟수를 기준으로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오해어공항의 TSA 보안검색 횟수는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494%나 증가

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미드웨이공항의 경우엔 증가 폭이 1000% 이상에 달한다.

전국적으로는 항공기 탑승객 수가 연일 하루 100만 명 이상, 주말에는 하루 150만 명으로 코로나19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TSA는 이달 초 항공 여행객 수 증가에 대비해 공항 보안 검색 요원 6000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공지한 바 있다. /연합뉴스

### 초저온 필요없는

### 동결건조 코로나19 백신

### 화이자, 곧 임상시험

제약업체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초저온 유통이라는 걸림돌을 제거한 동결건조 백신에 대한 임상시험에 곧 들어간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화이자는 바이오엔테크와 함께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동결건조 버전을 18~55세 성인들을 상대로 시험할 계획이다.

연구자들은 2개월 동안 진행될 이번 시험에서 동결건조 버전이 작년 말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긴급사용 승인을 받은 백신처럼 효과와 안전성이 있는지 확인한다. 화이자-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19 백신은 효과와 안전성이 높지만 제조 과정을 내려면 영하 70도 정도 초저온에서 유통되어야 한다.

FDA는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백신을 영하 20도에 최장 2주 동안 보관할 수 있다고 지난 2월 밝혔다.

동결건조 백신은 그에 반해 표준적인 냉각기에 보관할 수 있어 냉동이나 액체 백신과 비교할 때 유통과 보급에 이점이 있다. 가루 형태로 된 동결건조 백신은 접종 전에 희석 물질과 섞어야 하지만 폴드체인(저온유통) 부담이나 냉동, 냉장, 해동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보건업계의 수고를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화이자는 지난달 실적보고 발표에서 동결건조 백신의 개발이 성공적이라면 내년 초에는 사용할 준비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합뉴스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